

“아태아 운동 파트너십에 대한 분석과 평가”¹⁾

- 아태아²⁾와 에이스³⁾ 사역 13년을 배경으로 -

장완익⁴⁾ (pouen1020@gmail.com)

1. 들어가는 말

하나의 단체가 세워지고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영향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우며,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이 평가에는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설립자나 운영 책임을 맡은 이들 자신이 스스로 하는 평가⁵⁾, 이에 함께 참여했던 이들이 하는 평가, 이와 관계없는 제 삼자가 하는 평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아태아는 2004년 6월 24일, 당시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김활영 선교사의 초청을 받고 모인, 아시아 지역에서 신학교, 성경학교와 훈련원 사역을 하는 24명의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 때부터 2017년 3월 말,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13년 동안, 수십 개 이상의 신학교, 성경학교와 훈련원을 방문하면서 매해의 정기모임을 비롯한 크고 작은 모임을 꾸준히 가졌는데, 이러한 모임에 참석한 선교사, 목회자와 교수 및 이들이 하는 각종 사역에 아태아가 미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태아 운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으며, 파트너십⁶⁾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본 경우 역시 전혀 없었다. 본 소고에서는 지난 13년 동안의 아태아 운동 역사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피며, 이를 파트너십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며 평가하고자 한다.

-
- 1) 본 원고는 연구자가 Georgia Christian University의 Ph.D.과정, “선교 사역과 파트너십 연구” 과목 (김창환 교수)에 제출한 과제물이다.
 - 2) ATEA는 Association of Theological Education in Asia(2004년 6월~2014년 2월)와 Alli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in All-nations(2014년 2월~2016년 1월)의 약자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하나의 정형화된 고유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 3) AIIS는 AT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2014년 2월~현재)의 약자이다.
 - 4) 아태아대학원(AIIS) 부총장(행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조교수(연구전담),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협동총무, 캄보디아 주재 GMS 선교사(2006년~현재, 1993~2006년, 베트남 주재)
 - 5) 연구자는 2004년 6월, 당시 베트남에서 비공인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김활영 선교사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아태아 발족모임 이후 지금까지 아태아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였다. 그럼으로 아태아에 대해 비록 주관적이지만, 진솔하고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6) 연구자는 아태아 운동의 파트너십은 아태아 발기자 및 운영 책임을 맡은 이들(리더 그룹)과 아태아에 참석한 멤버들(멤버 그룹)을 그 기본 관계로 본다. 그러나 아태아와 소속 교단(아태아 설립 시에는 예장합동 교단선교부인 GMS, Global Mission Society 산하 단체였다)과의 관계, 아태아 멤버인 한인 선교사와 아태아 멤버들이 사역하는 학교나 단체의 현지인 사역자들과의 관계도 파트너십 관계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2. 아태아 설립 시의 파트너십 (2004년)

전술하였듯이, 김활영 선교사는 아태아 운동의 태동과 진행 과정에서 가장 큰 공헌과 역할을 하였다. 김활영 선교사는 예장합동 총회와 대구동신교회(당시 담임 김창렴 목사)의 파송으로 1977년 3월 30일, 필리핀에 도착하였으며, 한인 선교사가 선교지에 설립한 최초의 신학교인 필리핀장로회신학교(PTS,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한인 선교사가 선교지에 세운 최초의 선교사 자녀학교인 한국아카데미 등의 설립과 운영에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1997년, 그가 속한 교단선교부와 총신대학교의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사역지를 이동하였다.

그리고 2003년까지 만 6년 동안, 예장합동 교단선교부인 GMS 초대 사무총장(2008~2012년)과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겸임교수 사역을 중심으로 본국 사역을 하였으며, 위의 본국 사역을 마친 후, 2003년에 다시 필리핀으로 사역지를 이동하였다. 필리핀에서의 신학교 사역과 본국에서의 행정 및 교수 사역 등의 선교 경험을 가진 김활영 선교사는 한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신학교, 성경학교 운영의 장단점을 파악한 상태였고, 이의 대안과 해결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아태아와 같은 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태아 설립 시, 그가 염두에 두었던 성격 또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신학교와 성경학교라는 사역적 배경, 둘째는 아시아(Asia)라는 지역적 배경 그리고 셋째는 GMS라는 교단적 배경이 바로 그것이었다.

김활영 선교사의 초청을 받고 이 모임⁷⁾에 참석하면서 아태아를 설립한 이들은 모임을 마치면서 아래의 정관과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ATEA) 정관

(Association of Theological Education in Asia for GMS)

제1조, 이 기관의 이름은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ATEA: Association of Theological Education in Asia for GMS, 이하 본회)라 부른다.

제2조, 본 회의 사무실은 총무가 주재하는 나라에 둔다.

제3조, 본 회의 목적은 GMS의 선교 원리에 따라 회원 상호 간의 경험과 사역을 나눔으로 각자의 사역 발전을 도모하며, 공동 사역을 통하여 효율적인 지도자 양성에 기여함에 있다.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도자 훈련 사역(신학교, 성경학교,

7) 2014년 6월 22~24일,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까삐떼(Capite) 지역에서 모였는데, 이곳은 김활영 선교사가 초대 교장을 섬긴 필리핀장로회신학교(PTS)가 소재한 곳이다.

훈련원, 재교육 과정 등)을 담당하는 개인으로 한다.

제5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1) 회장은 1인을 두며,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 2) 부회장은 1인을 두며,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임무를 대행한다.
- 3) 총무는 1인을 두며, 본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 4) 지역 총무는 각 지역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 본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7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별도로 모금하여 충당한다.

제8조,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유효하며, 미비한 사항은 통상 규례에 따른다.

정관 통과일 2004년 6월 24일

ATEA 설립 결의문

GMS 산하 아시아 선교지역 신학교육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우리들이 그동안 해오던 현지 지도자 양성 사역에서 아시아의 다양한 신학적 차이의 문제와 아시아 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고민하여 오던 바, 아시아 지역의 개혁신학교육 확대 및 발전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2004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1. 아시아 지역의 GMS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문제와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Education in Asia for GMS, 이하 ATEA)를 발족하였다.
2. ATEA는 아시아 지역 개혁주의 신학의 미래를 선도할 교수 요원 양성을 위해 총신대학교의 국제화 계획과 연계하여 전략적 지역에 총신대학교 분교 설립을 요청하기로 한다.
3. ATEA는 아시아 지역 교회 지도자들의 신학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여 전략적 선교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하였다.

주후 2004년 6월 24일,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 창립회원 일동⁸⁾

이때 세워진 임원으로는 회장 여상일, 부회장 강대흥, 총무 김활영 등 3인이었는데, 아태야는 처음부터 총무 중심으로 사역하였다.

이 시기의 파트너십은 설립 주창자(이하 발기자)인 김활영 선교사와 김활영 선교사의 초청을 받고 이 모임에 참석한 23명의 선교사들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기관

8) 장완익, ATEA의 어제와 오늘, <아시아신학교육저널 제2호>, pp.17-18, 서울: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 2013.

이나 단체가 그러하듯이, 아태아 역시 신선한 분위기 그리고 특색 있는 단체가 설립된다는 기대로 인해 서로에 대한 파트너십은 고무적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모임에 참석한 김의원 전 총신대학교 2대 총장(2000~2004년)⁹⁾은 아태아의 비전이 ‘총신대학교 국제화 비전’과 일맥상통하기에 아태아와 총신대학교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제삼세계의 현지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주장하던 김의환 전 총신대학교 초대 총장(1995~1999년)¹⁰⁾이 추진하던 프로그램의 연장선 차원으로 진행하였기에 위 결의문 1번과 함께 2번이 처음부터 아태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는 아태아의 설립 목적과 운영의 주요 이슈가 두 가지였음을 내포하는데, 첫째는 현지인 대상의 지도자 양성 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둘째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를 개혁주의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등의 두 가지 이슈로 집약될 수 있다.

<김의환> 특별히 김의원 전 총신대학교 총장은 참석자 중, 유일하게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당시 GMS가 속한 교단의 총회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총장 재직 시 참여하였는데, 이 모임에의 참석을 시작으로 향후 아태아 운영과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김활영 선교사가 가진 시니어 선교사 그리고 아태아 발기자로서의 역할과 김의원 교수가 가진 시니어 교수로서 역할이 아태아라는 배경에서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트너십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은 지금의 아태아와 에이스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3. 아태아와 교단 관계에서의 파트너십 (2005년~2008년)

아태아가 설립 시부터 갖고 있는 성격 또는 취지 중 하나는 개혁주의를 대표하는 총신대학교와 협력하여 선교지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일이었다. 이는 아태아 설립 이전부터 김의환 전 총신대학교 총장을 중심으로 예장합동 교단선교부¹¹⁾가 갖고 있는 하

9) 현 아태아대학원 총장, 당시 총신대학교 현직 총장으로 아태아 창립 모임에 참석하였다.

10) 1933년 11월 19일, 전남 장흥군 출생~2010년 5월 10일 사망, 템플대학교대학원(Ph.D.), 칼빈대학교 총장과 성복중앙교회 담임목사 역임.

11) 예장합동 교단선교부는 1998년 11월 이전까지 교단 내 상비부서 중 하나인 ‘선교부’ 그리고 선교부 산하의 전담부서인 ‘선교국’이었으며, 1998년 9월 예장합동 교단 총회 시 설립을 허락받은 ‘총회세계선교회(GMS, Global Mission Society)’가 같은 해 11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GMS는 교단선교부라는 모달리티 성격과 전문 선교단체라는 소달리티 성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로의 출범은 국내 최초이다. 아울러 GMS는 2017년 3월 말 현재, 96개국 2,516명의 선교사 회원을 갖고 있는 국내 최대의 선교단체이다.

나의 중요한 이슈였으며, 김활영 선교사는 이 일에 중심 역할을 하였었다.

아태아 설립 이후 김활영 선교사는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4년 10월 12~14일, 태국 방콕에서 제1회 아태아 신학교육 컨설팅(호스트 강대흥)을, 2005년 5월 9일, 태국 방콕에서 총신 국제대학원 설립을 위한 아태아와 총신 간의 간담회를 가졌고, 2005년 9월 2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GMS 동남아 전략회의 시에는 김인환 전 총신대학교 3대 총장이 참석하여 ‘총신 국제대학원 설립 설명회’를 갖기도 하였다.

2006년 4월 11~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제2회 아태아 신학교육 포럼(호스트 최종국)에서는 김동권 초대 운영이사장, 강승삼 초대 원장 등이 직접 참석하여 총신 국제대학원 설립 추진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상기 결의문 첫 번째의 실천을 위해 아태아 설립 만 2년 만에 비로소 아시아 지역 신학교 인준과 교재개발 추진이 논의되었다.

같은 해 11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제3회 아태아 신학교육 포럼과 정기총회(호스트 김활영)에서 김활영 선교사는 총무 중심제인 아태아의 신임 총무로 연구자를 지명하였고, 참석자들의 동의로 장완익 총무 중심의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다. 아울러 PTS 강당에서는 ‘총신 국제대학원(CIGS, Chongshin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개원 예배를 가짐으로¹²⁾ 그 동안의 수고가 하나의 열매로 맺히게 되었다.

연구자는 신임 총무로서 맞이한 첫 아태아 모임, 제4회 아태아 신학교육 포럼을 2007년 9월 3~7일, 몽골(공동 호스트 몽장신/GMS 몽골지부)에서 가졌다. 이때 몽골과 키르기스스탄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참석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아태아의 주요 지역 배경이었던 동남아를 벗어나 동북아와 중앙아시아 사역자들과의 교류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고, 몽골장로교신학교(교장 황규영), 태국세계선교진흥원(원장 신홍식), 인도네시아 쉐마장로교신학대학(학장 김외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국제기독교대학(원장 방시몬), 중국 CRTS(교장 조대영) 등 다섯 단체는 아태아를 중심으로, 서로의 교육 과정을 공개하고 협력하기로 하는 첫 컨소시엄에 서명하였다.

한편 개원 이후의 총신 국제대학원은 원생 수급에 대한 준비의 미흡, 총신대학교의 정책과 지원의 미흡 등의 원인으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직면하였다. 결국 강승삼 원장이 사임하고, 학사와 학교 업무는 공전되었다. 이러한 아태아의 활동에 대해, 당시 GMS 본부(사무총장 강대흥)에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신학교, 성경학교 사역을 하는 GMS 선교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였으며, 아태아 역시 이러한 면에서 GMS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특별히 제대로 운영

12) 이 학교는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는 물론 소속 교단인 예장총회의 결의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필리핀 마닐라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되지 않는 총신 국제대학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교단 인사들과 아태아가 직접 만나 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1월 1~19일, 태국 방콕에서 가진 제5회 아태아 신학교육 포럼(공동 호스트 신홍식/김용섭)에서는 김인환 총신대학교 총장, 심창섭 총신 국제대학원장, GMS 이춘목 이사장, 강대흥 사무총장 등의 교단 인사가 대거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아태아 자체적인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아태아가 교단선교부인 GMS 안에서 또는 GMS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활동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GMS 본부에서 사역하는 강대흥 사무총장 대신 이진희 선교사를 아태아 부회장으로 보선하였으며, 아태아 활동을 돕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¹³⁾, 모두 총신대학교와 GMS 등, 교단 성향의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특이한 것은 총무 중심의 아태아에서 총무는 그 어느 위원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결정을 한 채 모임이 마쳐졌다. 이는 당시의 아태아 총무는 총신대학교나 GMS는 물론, 아태아 자체에서도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단체회원 제도를 도입하고, 연회비를 결정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때부터 아태아는 개인보다는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¹⁴⁾

이 시기의 파트너십은 총신대학교와 GMS로 대표되는 예정합동 교단과 아태아 사이에 형성되었으며, 아태아는 결국 다음 모임에서 교단의 벽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교단이 갖는 수많은 혜택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단 안에서의 조화와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의 실행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보여주었다.

4. 초교파 상태에서의 파트너십 (2009년~2013년)

소속 교단과 신중한 미팅을 갖고 난 후, 아태아는 교단과의 관계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였으며, 결국 2009년 1월 19~21일, 인도 벵갈로르에서 가진 제6회 아태아 신학교육 포럼과 정기총회(호스트 정운진)에서 GMS라는 교단에 대한 성격을 벗는 결정을 하였다. 즉 GMS 안에 있던 아태아가 복음주의 초교파 배경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 모임의 강사로 초청된 노봉린 박사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직전 해에 가졌던 모임에서 받은 적지 않은 충격의 결과이기도 했다.

13) 총신 국제대학원 운영위원회(황규영, 최종국)와 신학교 인준위원회(신홍식, 정운진, 김활영)가 그 대표이다.

14) 이때 아태아에 등록된 단체회원은 몽골장로교신학교(교장 황규영), 인도네시아 쉐마장로교신학대학(학장 김외현), 미얀마 저드슨대학 및 국제신학대학원(원장 김군배), 필리핀 아시아선교회(총무 김낙근), 태국세계선교진흥원(원장 신홍식), 인도 아시아신학대학 및 대학원(원장 정운진), 인도네시아 가나안누산따라신학교(교장 양춘석), 인도네시아 국제신학대학원(원장 김귀영),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국제기독교대학(학장 방창원), 말레이시아 KL바하사신학원(원장 최종국) 등이다.

아태아가 GMS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또는 GMS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활동해야 함을 강조하던 GMS나 총신대학교 그리고 아태아 자체에서는 그 1년 사이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세워진 위원회 역시 자체모임 조차 갖지 못하였다. 총무 중심 제인 아태아에서 총무가 배제된 모임이나 위원회가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아태아는 오히려 특정 교단을 벗어남과 동시에 초교파 단체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아울러 아태아 사역 방향은 총신 국제대학원 운영보다는 아시아 각 지역에 세워진 신학교와 훈련원을 돕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모임의 주 강사로 참석한 전 아시아신학연맹(ATA: 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총무 노봉린 박사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만 20년 동안, 아시아 신학교육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헌신으로 오늘의 아시아신학연맹이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때 참석자들이 결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TEA 뱅갈로 선언문

2009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뱅갈로에 모인 우리들은 아시아 신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아래의 내용을 선언한다.

1. 5년 전에 조직된 ATEA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아시아에서 신학교육을 하는 선교사들과 긴밀한 협력 및 네트워크를 이룬다.
2. ATEA는 현장 중심의 교회 설립과 신학교육을 추구하며, 선교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여 발표한다.
3. ATEA는 아시아 신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복음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는 단체와 상호 협력한다.

주후 2009년 1월 21일

제6회 인도 뱅갈로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ATEA) 참석자 일동¹⁵⁾

아태아가 발전한 또 한 번의 계기는 2010년 2월 1~4일, 홍콩에서 가진 제7회 아태아 신학교육 포럼 및 정기총회(호스트 윤형중)였는데, 이는 생명길선교회 10주년을 겸하여 가진 모임으로, 아태아는 이때 강사로 참석한 조동진 박사와 그 선교회 소속의 여러 선교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이하였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방된 지역이자 중국과 실크로드를 바라보는 홍콩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마치 ATEA의 중요성과 일맥상통 하는 듯, 그 동안 총무 중심 체제로 되어

15) 장완익, ATEA의 어제와 오늘, <아시아신학교육저널 제2호>, p.20, 서울: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 2013.

있었던 정관을 코디네이터 중심 체제로, 약간 명의 커미티와 자문위원을 함께 세움으로 실무진을 보강하였다.¹⁶⁾ 이 모임에서 연구자는 첫 코디네이터로 선임되었으며, 국제 총신¹⁷⁾의 운영 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참석한 심창섭 원장이 이때부터 아태아 안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신학포럼 시에는 ‘선교적 교회론’을 주제로 다루었는데, 이는 순회 선교사로 임명된 후 말레이시아에서 전방개척선교(Frontier Mission) 사역을 시작한 김활영 선교사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성남용 교수와 김요한 선교사 등의 ‘선교지에서의 교회론에 대한 재고’ 원고 발표가 영향을 주었다.

코디네이터인 연구자는 첫 커미티 모임을 국제 총신 행정본부가 소재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졌으며, 이때 그 학교의 운영에 대한 실무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아태아 차원에서 필요한 협조를 모색하였다. 이때 심창섭 원장은 국제 총신은 아태아에서 시작 되었으므로, 총신대학교가 아닌 아태아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사이 국제 총신은 본교를 서울 사당동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이전하였으며, 약 2년 만에 다시 만난 자리에서 아태아 신임 커미티는 국제 총신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후 심창섭 원장은 국제 총신을 아태아에서 운영하도록 총신대학교에 건의하였다.

2011년 2월 14~1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가진 제8회 아태아 신학교육 포럼과 정기총회(호스트 조용성¹⁸⁾)에서는 ‘총신 국제대학원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아태아에 위임한다.’는 총신 국제대학원 운영위원회(위원장 남태섭)의 업무협약서에 서명 인준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제대학원 원장 김활영, 교무처장 김낙근 등 2인을 선임하였다.

아울러 아시아 각 지역 신학교와 훈련원의 인준을 위한 아태아 인준매뉴얼을 승인하고, 인준위원으로 강승삼, 전호진, 김활영, 신홍식, 심창섭, 김의원, 성남용 등 7인을 선임하였다.

2012년 2월에는 통과된 인준매뉴얼에 따라 인준을 신청한 필리핀 국제사역신학원(IGM: Institute for Global Ministry)과 태국 치앙마이신학대학원(TCTS: Thailand Chiangmai Theological Seminary)을 실사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3~16일,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가진 제9회 아태아 신학교육 포럼과 정기총회(호스트 양춘석)에서 인준위원회 보고가 통과됨으로 상기 두 학교에 5년 기한의 인준증서와 인준패가 발급되었고, 조동진 자문위원의 제안에 따라 아시아 각 지역의 신학교/훈련원 디렉토리를

16) 이때 선임된 커미티는 이대학, 김낙근, 김외현, 조대영, 김문수, 최하영, 최의교, 이병구 등이었으며, 자문위원은 김활영, 정운진, 조동진, 전호진, 윤형중, 신홍식 등이었다.

17) 총신대학교 국제대학원 또는 총신 국제대학원의 약칭으로, 총신대학교라는 교명이 해외에서 직접 사용되는 점에 부담을 갖는 총신대학교 측을 이해하며, 이때부터 아태아 측에서는 ‘국제 총신’이라는 약칭을 사용하였다. 다만 공식 문서, 졸업장과 학위 등에는 총신대학교 국제대학원으로 표기되었다.

18) GMS 현 선교총무(2015년 9월~2017년 3월 현재)

발간하기로 하였다.¹⁹⁾ 이때 조동진 박사는 노구를 이끌고 2010년 2월, 홍콩에 이어 2012년 3월, 인도네시아 스마랑에 참석하여 아태아 모임을 격려하였다.

2013년 2월 12~14일에는 캄보디아장로교신학대학(CPTI: Cambodia Presbyterian Theological Institute) 인준을 위한 실사를 가졌으며, 같은 해 3월 5~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제10회 아태아 신학교육 포럼과 정기총회(준비위원장 박광옥, 프로그램위원장 김낙근) 시에는 CPTI(대표 전호진)를 인준하였으며, 만 2년 동안 운영하던 총신 국제대학원의 졸업식과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때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여함으로 아태아의 사역 범위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하게 되었다.

이때 총신 국제대학원 졸업식과 학위수여식에 참여한 선교사의 대부분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가 인정되어 졸업장과 함께 해당 학위를 수여받았지만,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해당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상당수의 선교사들은 큰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아태아 측에서는 ‘일정 기간에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총신대학교 측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의 총신 국제대학원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이지만 미 수료생 선교사들²⁰⁾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때 이에 해당되는 선교사들은 ‘해외에서 연구할 수 있는 과정이나 학교 설립’을 요청하였으며, 아태아 총회에서는 이를 공식 안건으로 받아들여, 학교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활영)를 구성하였으며, 이 위원회의 첫 모임을 같은 해 5월 9~10일, 싱가포르에서 가졌다.

이 모임은 아태아의 역사 가운데 상당한 의미가 부여된 모임이었다. 당시 아태아의 코디네이터이자 대표인 연구자와 상기 위원회의 위원장인 김활영 선교사는 실크로드 지역 방문 중이었으며, 사전 예고 없는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항공 일정이 지연되었다. 예정된 시간, 예정한 장소에 모인 참석자들은 아태아 대표와 위원장이 유고이지만 당연히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 모임은 김낙근 커미티를 임시 의장으로 세운 뒤에 개최되었다.

그리고 당일 저녁에 도착한 아태아 대표와 김활영 위원장은 그날의 회의 결과를 통해 학교설립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심창섭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같은 해 3월, 아태아 마닐라 총회에서의 결정과는 또 다른 결정이지만 합법적으로 소집된 회의에서 합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내용이었으며, 다음 날 오전에 이어

19) 2013년에 발행된 <아시아신학교육저널 제2호>에는 일정 기준에 의한 아시아 지역 40여 개의 신학교, 성경학교 프로필이 포함되어 있다.

20) 이들은 1999년부터 시작된 총신대학교 선교사연장교육원 재학생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케냐, 아시아에서는 태국 등지에서 과정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GMS 선임 선교사들이 1994년 8월, 예루살렘 전략회의의 결과로 시작된 프로그램을 이어 받은 것이다. 김활영, ATEA를 통한 지도자 양성의 역사와 필요, <아시아신학교육저널 제2호>, p.152. 참조.

진 속개 회의에서는 연구자가 의장으로, 이에 대한 세부 진행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아울러 계속하여 위원회 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며,²¹⁾ 다음 모임은 같은 해, 10월 22~23일, 서울 인근에서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같은 해 3월부터 진행하던 학교 설립의 세부안을 모두 받아, 그 중의 하나를 아태아 안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 모임에서 학교설립위원장으로 선임된 심창섭 교수는 세부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김활영 위원은 세부안을 제출하였다. 물론 심창섭 교수도 구두로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두 위원의 견해 차이는 학위 수여 여부가 가장 컸다. 중요한 것은 학위를 포함한 설립할 학교의 세부 윤곽이 문서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김활영 선교사는 이에 대해 확신이 있었고 이를 문서로 제출한 것이었다.

위원회로서는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거의 밤새 의견을 나누는 결과 참석자 중 대부분은 ‘아태아의 설립 목적에 따라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를 아태아의 철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김활영 위원의 세부안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차기 총회에 상정할 아태아 학교 설립안으로 채택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아태아는 설립 초기의 파트너십과는 다른, 즉 발기자인 김활영 선교사와 이에 동조하면서 참석한 선교사들 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예정합동 교단선교부인 GMS와 총신대학교를 주축으로 한 교단과 아태아 간의 파트너십 시대를 지나 복음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초교파 상태에서의 파트너십이 두드러졌다.

이때의 파트너십은 기존의 예정합동 교단 안의 선교사와 교수들과 복음주의 배경의 초교파 선교사와 교수들이 형성하였는데, 이를 대표하는 이들은 전자에 김활영, 박광옥, 김낙근, 정운진, 심창섭, 신현수, 성남용, 장완익 그리고 후자에 전호진, 이교성, 오세관, 김의원, 장훈태 등이었으며, 주요 이슈는 총신 국제대학원의 뒤를 이어 선교지에서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의 설립이었다.

5. 에이스 설립 과정에서의 파트너십 (2014년~2015년)

이러한 학교 설립 건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진통을 겪은 아태아는 2014년 2월 24~28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1회 아태아 신학교육 포럼과 정기총회(호스트 김수길)를 가졌으며, 이때 김활영 선교사가 상정한 아태아대학원 설립안을 받아들여 아태아대학원을 설립하였으며, 호주 YWAM 318(대표 하태식)의 Certificate, Diploma 과정을 인준하였다. 이와 함께, 아태아의 사역 범위를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확장하였으며, 그때부터 기존의 아태아 회원인 인준단체, 컨소시엄단체는 물론, 여러 지역에 해당 지역

21) 장완익, 아태아와 열두 바구니, <아태아대학원 저널3호>, p.9, 서울: 아태아대학원, 2016.

아태아대학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태아의 명칭 변경에서 드러났는데, 기존의 Association of Theological and Education in Asia를 같은 ATEA이지만 Alli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in All-nations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이미 주위에 널리 알려진 ATEA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되, 10년 전 설립 시의 사역 범위와 대상 그리고 성격은 변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아태아대학원(AIIS: AT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을 설립하였으며, 초대 원장으로 김의원 박사를 청빙하였다. 부원장으로는 김활영 선교사와 정운진 선교사를 내정하였는데, 김활영 선교사는 한국선교학연구소(KMRC: Korean Missiology Research Center)²²⁾를 그리고 정운진 선교사는 지역학교연합(ARS: Alliance of Regional Schools)²³⁾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 두 기관은 아태아대학원의 두 기둥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는 한국인 선교사를 주 대상으로 한국 선교학에 대해 연구하는 그리고 하나는 한국인 선교사가 설립하였거나 사역 중인 신/성경학교와 훈련원 컨소시엄을 통하여 현지인 리더십을 개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운진 선교사는 아태아대학원 설립 시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참여하지 못하다보니 지역학교연합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다. 아태아대학원의 두 기둥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학교연합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자 김활영 선교사는 이의 담당을 연구자에게 위임하였고, 연구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가 하루아침에 추진되기는 어려웠다.

대외적으로는 아태아대학원의 발전과 확장이 있었는데, 같은 해 7월 9~11일, 백석대학교에서 아태아대학원 개원예배 및 김의원 원장 취임식 그리고 공개강좌를 가졌으며, 이때 강승삼 박사, 신홍식 박사를 협동원장으로 위촉하였다. 조동진 박사의 강의를 비롯한 공개강좌를 통해 아태아대학원의 출범을 외부에 알렸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법인을 등록함으로써 한 국가의 실정법을 따르는 공식 단체가 되었다.²⁴⁾

같은 해 9월 21일과 23일에 첫 지역 아태아대학원인 페르시아아태아대학원(AIIS PERSIA, 원장 윤성환)을, 이어 한국아태아대학원(AIIS KOREA, 원장 김연수, 후에 흥운표로 교체)을, 10월 22일과 24일에 필리핀아태아대학원(AIIS PHILIPPINES, 원장이교성)과 KL아태아대학원(AIIS KL, 원장 김기홍)을 개원하였다.

22) 한국선교학연구소는 한국 교회의 선교, 한국인 선교사에 의한 선교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전통적인 서구 선교를 모델로 하기 보다는 한국적 선교학 자체를 연구하고자 설립되었다. 연구소의 목표는 '한국 선교사들이 자기 개발을 통하여 자기 사역을 발전시켜 한국 선교학 발전에 기여한다.'로 되어 있다. 김활영, 한국선교학연구소, <아태아대학원 저널3호>, 서울: 아태아대학원, 2016.

23) 지역학교연합은 각 선교마다 세워진 신학교, 성경학교와 훈련원의 공통 커리큘럼의 개발, 인준과 협력, 컨소시엄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장완익, 선교지 신학교의 효과적인 운영과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학교연합, <아태아대학원 저널3호>, 서울: 아태아대학원, 2016.

24) 캄보디아 정부에 등록된 ATEA International Co.,LTD.,

2015년 1월 27~3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12회 아태아 신학교육 포럼과 정기총회(준비위원장 김향철)를 가졌으며, 이때 캄보디아아태아대학원(AIIS CAMBODIA, 원장 공베드로)을 개원하였다. 이때 특수지역인 X국의 AMAS(대표 김희락)의 M.Div, M.A. 과정을 인준하였으며, 같은 해 2월 17일에 볼레르아프리카아태아대학원(AIIS PNAM, 원장 김요한)을, 3월 29일에 싸울루스아태아대학원(AIIS PAULUS, 원장 이요셉)을 그리고 6월 1일에 유럽아태아대학원(AIIS EUROPE, 원장 김수길)을 개원하였다.

2015년 하반기에 이르러 아태아대학원 부원장 겸 한국선교학연구소를 담당한 김활영 선교사의 건강이 급속하게 쇠약해졌으며, 이와 함께 여러 지역에 설립된 지역 아태아대학원의 운영상 취약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²⁵⁾ 아태아대학원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 또는 아태아 발기자이자 가장 중심에서 활동하였던 김활영 선교사의 건강상 문제만은 아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설립 초기의 아태아대학원이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기대하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다각도의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러던 중, 건강 이상으로 힘들어하던 김활영 선교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으로 사역지를 철수하였고, 김활영 선교사에게 더 이상 아태아 또는 아태아대학원의 짐을 지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인들의 권고를 듣기에 이르렀다. 불과 두 세 달 뒤에 가질 제13회 아태아 신학교육 포럼과 정기총회를 고민하던 연구자에게는 진퇴양난의 고비가 아닐 수 없었다.

김활영 선교사의 대내외적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연구자로서는, 만일 김활영 선교사가 아태아와 아태아대학원 사역을 일선에서 감당하지 못할 때, 아태아와 아태아대학원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라는 고민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태아 발기자이자 지금까지 가장 큰 공헌을 아끼지 않은 김활영 선교사가 어떤 결정을 하던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김활영 선교사는 두 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먼저는 아태아와 아태아대학원을 하나의 행정 체제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연구자 외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일군이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아태아와 아태아대학원 이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연구자에게 너무 힘든, 즉 아태아에서는 대표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그리고 아태아대학원에서는 지역학교연합 대표와 교무처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연구자의 역량을

25) 아태아대학원 본부에서 각 지역 아태아대학원으로 기본 커리큘럼이 주어지거나 본부 인사가 정기적으로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연구 활동이 잘 되도록 독려하는 체제에 익숙한 한인 선교사들에게, 멘토와 멘토리 관계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스스로 커리큘럼을 정하여 연구하도록 하는 아태아대학원의 운영 철학이 적용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 아니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아태아와 아태아대학원 안에서 겹쳐지는 면이 너무 많았고, 그만큼의 효과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다음 모임을 앞두고 연구자는 위의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염두에 두었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함께 일할 일군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김의원 원장에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과 함께, 아태아대학원이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해 자문을 구하였다. 김의원 원장 역시 여러 번 김활영 선교사를 만나 신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아태아와 아태아대학원을 위해 모두 긴밀히 동역해야 함을 서로 확인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아태아와 아태아에서 설립한 아태아대학원 사이의 파트너십이 돋보였다. 주요 인사로는 아태아를 대표하는 김활영 선교사와 아태아대학원을 대표하는 김의원 원장 사이의 파트너십이었으며, 아태아대학원 국제본부²⁶⁾의 최하영 선교사(우크라이나 주재)는 인준 부분과 유럽 지역의 리더십 연결을 위해 그리고 성일택 선교사(캄보디아 주재)는 홈페이지 운영과 프놈펜 국제본부 행정 사역을 위해 연구자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하였다.

6. 지도력 교체 시의 파트너십 (2016년~2017년)

2016년 1월 11~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3회 아태아 신학교육 포럼과 정기총회(준비위원장 이철우)는 그 동안 갖던 아태아 모임의 일반적인 형태와 달리, KL아태아대학원 주관의 각종 선교세미나를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과 함께 가졌으며, 밤 시간에 아태아 또는 아태아대학원 관계자들이 숙소에서 자체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자체모임을 가졌고, 마지막 날 오후에 비로소 아태아 정기총회를 가졌다.

정기총회 전날까지도 아태아와 아태아대학원에 대한 구체적 진로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기총회 당일 점심식사를 마친 후, 김활영 선교사는 연구자를 불러 아태아와 아태아대학원의 향후 구조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연구자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준비되었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에 김활영 선교사는 그러면 아태아와 아태아대학원을 하나의 체제로 조정하자고 하였다.

연구자는 비로소 아태아와 아태아대학원을 하나의 체제로 조정하는 안을 문서로 만들어 정기총회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였으며, 김활영 선교사의 동의 아래, 총장 김의원, 명예총장 김활영, 협동총장 강승삼, 정윤진, 신흥식, 부총장(학사) 김연수, 부총장(행정) 장완익 체제가 출범하였다.

26) 당시 아태아대학원 국제본부는 원장 김의원, 부원장 김활영, 정윤진, 협동원장 신흥식, 강승삼, 학감 최하영, 교무처장 장완익, 교무과장 성일택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아태아 인준위원회에서는 GUTS(대표 김순남), BBBC(대표 이문남), ANTS(대표 남성균), LBI(대표 최인봉) 등 네 학교를 인준하였으며, 태국라오스아태아대학원(AIIS THAILAND LAOS, 원장 최인봉), 중국아태아대학원(AIIS CHINA, 원장 김순남) 등의 지역 아태아대학원을 설립하였다.

아태아 총회를 통해 새로운 체제로 탈바꿈한 아태아대학원(약칭 에이스)은 인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에이스 이름으로 진행하였으며, 인준 업무는 <아태아 인준위원회> 이름으로 기존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지도력 교체에 따른 후유증과 갈등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다.

같은 해, 5월 10일에 남미아태아대학원(AIIS SOUTH AMERICA, 원장 강성철)을 개원하였으며, 9월 16~18일에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아시아지역 학교장/단체장 대상의 컨설팅이션을 가지면서, 지난 1월 총회 이후의 후속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때 아태아 인준위원과 법인관리위원을 보강하였으며,²⁷⁾ 특별히 법인관리위원회에서는 연회비를 납부하기 시작하면서 행정 업무에 내실을 기하게 되었다.

이는 2014년 7월, 아태아 법인 설립 이후, 별다른 사업이 없음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아태아를 유령회사(paper company)로 오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늘어나는 업무로 인한 직원 채용, 사무실 확보, 재정 확보 등의 필요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에이스의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연구자는 프놈펜 인근의 작은 부지를 아태아 법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정식 직원 채용과 정기적인 세금 납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7년 2월 8~11일,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2017년 아태아대학원 운영위원회(호스트 하태식)는 아태아대학원으로서의 행정 단일화 이후 첫 운영위원회였으며, 12번째 에이스로서 호주태평양아태아대학원(AIIS AUSS PACIFIC, 원장 하태식)을 개원하였다. 아울러 이때 참석한 10개국 30명의 운영위원(부부 포함)은 장시간 회무, 정회와 소개를 거듭한 결과 아래의 결과를 도출해냈으며, 이를 결의문으로 채택하였다.

2017 AIIS 시드니 결의문

2017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호주 시드니 YWAM 318 베이스에 모인 아태아대학원(AIIS: AT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약칭 에이스) 운영위원 30명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아태아(ATEA)는 신/성경학교와 훈련원의 인준기관이며, 에이스(AIIS)는 각 지역의 신/성경학교와 훈련원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은 지역 대학원이다. 이 두 단체는 긴밀히

27) 인준위원회에는 기존의 인준위원장 장완익, 총무 김낙근, 위원 최하영 외에 김연수, 이철우, 김다니엘, 오세관 위원을, 법인관리위원회에는 법인관리위원장 김의원, 서기 장완익 외에 김희락, 박광욱, 김영욱, 신현수, 윤형중 위원이 추가로 임명되었다.

협력하면서 상호 보완하되, 행정적 실체는 분리되어야 한다.

2. 각 신/성경학교와 훈련원은 아태아로부터 인준된 과정에 대해 학위를 수여하며, 그 이상의 학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대학원 산하 신/성경학교와 훈련원이 연합하여 필요한 과정을 준비 후, 아태아의 인준을 얻어 상응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3. 에이스는 해당 지역의 패컬티, 연구원과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되는 모바일 지역 대학원임과 동시에 해당 지역 신/성경학교와 훈련원 컨소시엄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책임을 맡는다. 아울러 행정본부를 중심으로, 타 지역 대학원들과 수평적인 협력을 도모한다.
4. 아태아 회원 학교와 단체는 에이스 각 지역 대학원이 구성되고,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
5. 에이스 각 지역 대학원은 해당 지역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한다.
6. 에이스 패컬티, 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은 매년 자신학(自神學)이나 지역학 혹은 사역에 관련된 소논문 한편 이상을 제출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멘토-멘토리 관계를 구성한다.
7. 한국 선교사의 선교사역 자료, 선교와 지역에 관한 자료는 아태아/에이스 한국사무소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 정리하여, 모든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2월 11일

AIIS 시드니 운영위원회 참가자 일동

김의원 총장, 김연수 부총장(학사), 장완익 부총장(행정)/이상 행정본부
강성철, 지덕진, 방창원, 이은희, 김희락, 문시온, 김동규, 이승향, 홍운표, 안오순,
박광옥, 우예덕, 김수길, 오세관, 김다니엘, 이교성, 김경자, 신현수, 김상엽, 문성환,
이철우, 김문경, 김낙근, 하태식, 유승도, 김영옥, 변옥선/이상 운영위원²⁸⁾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는 현지인 선교사 훈련을 위해 김상엽(위원장), 김낙근, 이철우, 문성환 4인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결과를 내년 모임 시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아태아 저널 출판을 위해 편집위원회(김연수-위원장, 장완익, 홍운표)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출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차세대지도력개발연구위원회(김낙근-위원장, 김다니엘, 김상엽, 유승도, 문성환, 김동규, 최인봉, 이종현)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내년 모임 시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아태아 인준위원회에서 채택한 GBC(대표 김다니엘) B.Th., M.A., M.Div. 과정과 MTS(대표 오세관) B.Th. 과정에 대해 각각 아태아 인준패와 인준증서를 수여하였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는 그 동안의 아태아와 에이스에서 볼 수 없었던, 자체적인

28) 김의원, 2017 AIIS 시드니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17년 2월 23일자 이메일

지도력 교체 시에 나타나는 파트너십을 볼 수 있는 때였다. 연구자로서는 앞의 해가 지도력 교체로 인한 아픔과 갈등의 해였다면 다음 해는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아태아와 에이스는 설립 14년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이론과 현실이 조화되지 않는 탁상공론의 논쟁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측정과 평가가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그리고 민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채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먼저 일군 된 이들은 물심양면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섬기는 이로서의 참된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먼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나아가 서로 간에 섬김으로 주어진 파트너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7. 나가는 말

아태아 설립 이후 만 13년이 지났다. 그 동안 아태아와 에이스에 참여한 선교사와 교수, 목회자 등은 수백 명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파트너십 역시, 다양한 형태를 이루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한 파트너십을 시기와 형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아태아 발기자인 김활영 선교사와 설립 모임에 참석한 선교사들 간의 파트너십이다. 이는 전통적인 한국형 모델²⁹⁾인 1명의 시니어 선교사와 다수의 시니어 및 주니어 선교사들이 맺은 파트너십이며, 단체의 발기자와 단체에 참여하는 멤버들 간의 파트너십이다.

이 경우의 파트너십은 분명한 모임의 취지 아래, 일사불란한 형태의 조직 형태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 기간 내에 기대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력이 약해지거나 식상해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지금은 디지털 형태 그리고 다수와 다수가 네트워크 하는 시대인데, 이러한 아날로그 형태 그리고 소수와 다수가 네트워크 하는 파트너십이 젊은 세대의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그 대답이 쉽지 않은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아태아 설립 후 6년 동안의 아태아는 예장합동 교단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아태아와 해당 교단 사이의 파트너십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총신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경우에는 총신대학교 뿐 아니라 해당 교단 총회에서 설립을 결의하고 이와 함께 운영과 후원을 위해 별도의 이사회까지 구성하였기에 얼

29) 현재의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치적인 형태 역시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는 국가로서, 연구자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탁월하거나 분명한 한 사람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을 전통적인 한국형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본다.

마든지 교단의 정체성 아래에서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할 경우, 한 교단의 울타리 안에서 국제적인 학교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태아와 아태아가 소속한 교단과의 파트너십은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아태아의 많은 구성원이 소속한 예정합동 교단과 아태아의 파트너십은 그리 원활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랬기에 아태아는 한 교단을 벗어나 복음주의 배경의 초교파를 대상으로 파트너십을 넓히고, 대외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하긴 했으나 그 당시 예정합동 교단과의 파트너십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아태아가 소속 교단과의 파트너십을 뒤로 하고 복음주의 배경의 초교파를 파트너십으로 하던 이 시기에, 아태아는 대내외적으로 폭 넓은 발전과 확장을 가져왔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집중하였으며, 전호진 박사, 장훈태 박사, 이교성 박사, 오세관 박사 그리고 조동진 박사 등의 국내외 인사와 함께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었다. 아울러 아태아 자체적으로는 김활영 선교사 외에도 강승삼 박사, 정윤진 박사, 신홍식 박사, 김의원 박사, 심창섭 박사, 윤형중 목사 등의 예정합동 교단 인사들이 아태아에 참여함으로 인재 풀이 형성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시니어 선교사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양춘석 선교사, 태국 김문수, 김석우 선교사, 몽골 이대학 선교사, 필리핀 김낙근 선교사, 베트남 최의교 선교사, 중국 조대영 선교사, 인도 이병구 선교사 등이 아태아에 참여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참신한 이미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넷째, 아태아가 소속 교단과의 파트너십을 뒤로 하고 복음주의 배경의 초교파를 파트너십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신대학교 국제대학원은 여전히 아태아의 주요 이슈로 남아 있었다. 즉 2011년부터 아태아에서 운영한 총신대학교 국제대학원은 2013년 3월, 처음이자 마지막 학위수여식을 가지면서 문을 닫았지만 그 학교의 뒤를 잇는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았던 파트너십을 만나게 되었고, 이는 지금의 아태아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되었다.

즉, 새로운 학교의 설립 과정에서 현실적인 필요보다는 아태아의 설립 철학이 담긴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태아의 설립 철학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으며, 이러한 두 주장은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아태아는 명칭과 성격 모두 아태아 설립 철학 중심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소속 교단과의 파트너십에서 한 차례 진통을 겪은 아태아가 또 한 차례의 진통을 겪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태아의 진통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다섯째, 이렇게 하여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였고, 아태아 법인을 캄보디아 프놈펜에 등

록하였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발전하고 새롭게 출발하던 아태아와 에이스는 불과 1~2년 지나면서, 또 한 차례 파트너십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금까지의 파트너십과 이번 파트너십의 차이점은 아태아 발기자이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던 김활영 선교사와 아태아 또는 에이스가 같은 파트로서 아태아 외부의 교단, 단체 또는 개인과 파트너십에 대한 관계를 이루었는데, 이번에는 김활영 선교사와 아태아 및 에이스가 다른 파트에서 파트너십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은 어느 단체나 회사 또는 교회에서도 역시 가능한 형태의 파트너십이며, 비록 설립자 또는 큰 영향력을 미치던 인사가 설립한 단체나 회사 또는 교회와 어떤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체나 회사 또는 교회에 임기제도가 있는 경우와 임기제도가 없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임기제도는 파트너십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기간이라는 면 외에도 상대방 또는 타인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신직 또는 명예직 그리고 은퇴라는 의미나 성격 역시 파트너십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모세나 사무엘은 은퇴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삼중직을 모두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인물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으며, 그러한 신적인 부르심과 준비된 인물이 갖추어질 경우에는 그러한 파트너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정 인물을 통하여 특수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기 보다는 더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보편타당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지난 아태아와 에이스 13년의 파트너십을 살펴보면, 연구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과목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은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다. 가장 건강하고 긴밀한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을 가짐으로 형성할 수 있다.

연구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과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은 특별한총의 그리고 양심은 일반은총의 통로이며, 이 두 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청결하게 유지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잘 되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이라 생각한다.

둘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은 부부, 즉 아내와 남편이다. 부모도 자녀도 부부보다 중요한 파트너십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금년으로 결혼 27년을 맞이했는데, 지난 27년을 돌아볼 때, 연구자 부부의 파트너십은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낙제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이며, 연구자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배려하는 배우자 덕분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긴밀하게 신뢰하는 파트너십 없이 타인과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무의미할 것이다.

연구자가 지난 13년 동안 아태아와 에이스를 섬기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아태아와 에이스에 참여하는 목사, 교수와 선교사들은 모두 부부 간의 파트너십이 좋았다. 그러므로 아태아와 에이스의 보이지 않는 전통 중에 하나는 부부 간의 좋은 파트너십인 것이다.

셋째, 아태아와 에이스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물이 장기간,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이다. 때로는 특정 인사가 필요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일시적 또는 특별한 경우이다.

그리고 파트너십의 대상과 영역을 알고 있는 상대나 익숙한 분야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아태아와 에이스의 구성원이 한국인으로만 되어 있는 점, 한국어가 공용어인 점은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해야 할 점이며,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파트너십 개발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중국은 단순한 한 국가라는 개념을 벗고, 아태아와 에이스 파트너십 개발의 1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미 아태아와 에이스에는 중국 대상 사역 단체가 여러 개 있고, 수십 명의 파트너들이 준비되어 있다. 중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개발은 곧 아태아와 에이스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신실하게 준비하느냐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주님과과의 파트너십, 부부 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아태아 에이스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와 전략 수립은 지금까지의 아태아 에이스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지름길이며, 이렇게 주님께 사용되는 아태아 에이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널리 확장될 것이다. 끝.

참고목록

강승삼.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김의원, “2017 AIIIS 시드니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17년 2월 23일자 이메일.

- , 『아태아대학원저널 제3호』, 서울: 아태아대학원, 2016.

김활영, “ATEA를 통한 지도자 양성의 역사와 필요.” 『아시아신학교육저널 제2호』, 서울: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 2013.

- , “한국선교학연구소.” 『아태아대학원 저널3호』, 서울: 아태아대학원, 2016.

- 신성주. 『타문화 선교리더십』. 생명의 양식, 2009.
- 옥한흠 외. 『리더십 쉬프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이현모. “한국교회 선교에서 연합 운동의 필요와 대안.”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성경과 신학. 57권. 2011
- 장완익, “아태아와 열두 바꾸니.” 『아태아대학원 저널3호』, 서울: 아태아대학원, 2016.
- , “선교지 신학교의 효과적인 운영과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학교연합.” 『아태아대학원 저널3호』, 서울: 아태아대학원, 2016.
 - , “ATEA의 어제와 오늘.” 『아시아신학교육저널 제2호』, 서울: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 2013.
 - , 『아시아신학교육저널 창간호』, 서울: 선교타임즈, 2008.
 - , 『아시아신학교육저널 제2호』, 서울: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 2013.
- 조동진, “선교사의 인성과 선교지도력”, 『아태아대학원 저널3호』, 서울: 아태아대학원, 2016.